

# 송계8경·화양9곡...산수화 속 풍경서 '신선 놀음'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신비를 간직한 능강계곡 전경.

## 푸른 숲·맑은 물·신선한 바람... 계곡으로 떠나는 피서

### 충북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도시는 팽펄 끓는 찜통 속 같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는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하다. 간간이 불어오는 미적지근한 도시의 바람은 무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일상탈출이 더 그리다. 무더운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싶다면 시원한 물과 우거진 숲, 그리고 넉넉한 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시원한 계곡을 추천한다. 무더운 이 여름, 푸른 숲과 맑은 물, 신선한 바람이 머무는 충북의 계곡에서 잠시나마 신선이 돼 보는 건 어떨까.

◇ 월악산이 품은 휴식처 제천 송계계곡  
충북 제천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계곡들은 너럭바위 또는 뚝바위라고 불리는 크고 넓게 퍼져 있는 바위들이 계곡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자연휴식처를 제공해 준다.  
◇ 중 송계계곡은 월악산(1094m)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기하 여름더위를 잊을 수 있는 백미로 꼽힌다. 특히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은 얼음처럼 차가워 여름철 더위를 식히려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다. 계곡을 따라 놓여진 바위 하나 하나가 크고 넓어 텐트를 치고 놀기에 적당하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수량도 풍부하다.  
계곡 주변에는 월악영봉을 비롯해 자연대, 월광폭포, 학소대, 망폭대, 수경대, 와룡대, 팔랑소 등 송계팔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또 수백 년 묵은 노송들은 바위와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이밖에 천연기념물 제337호인 망개나무, 덕주사, 미륵사지 등의 관광명소가 흠뻑 젖어 등산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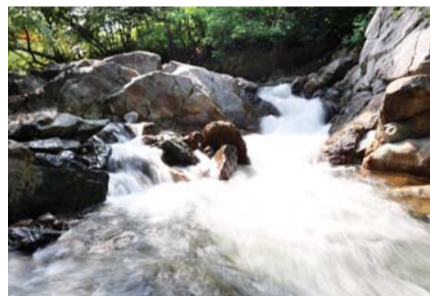
◇ 한여름의 신비 제천 능강계곡  
제천 청풍문화재단지에 이르기 전 청풍호를 오른쪽에 끼고 산중턱 포장도로를 10여 분쯤 달리면 정방사를 알리는 이정표와 함께 왼쪽으로 금수산에서 발원하는 '능강계곡'을 만날 수 있다. 능강계곡의 발원지는 제천 수산면과 단양군 적성면의 경계에

서 있는 금수산(1016m)의 서북사면 8부쯤이다. 이곳은 지대가 높고 남북을 가로막아 종일 햇볕이 드는 시간이 짧아 한여름에도 바위가 차가워지고 물이 얼어 삼복지경에도 얼음이 나는 곳이라 해 얼음골 또는 한양지라 한다. 이곳 한양지에서 발원해 능강계곡을 흐르는 물길은 울창한 소나무숲 사이로 맑은 물이 굽어치고, 깎아 세운 것 같은 절벽과 바닥까지 비치는 맑은 담(潭), 쏟아지는 폭포수 등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계곡의 왼쪽 능선에는 신라 문무왕 의상대사가 창건한 정방사가 있어 산사아래 청풍호를 내려다볼 수 있다. 또 청풍문화재단지, 청풍호 내 수경보수, 청풍랜드, 산악체험장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 가족 단위 여행으로 제격이다.

◇ 속리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보은 서원계곡  
보은군 장안면에 있는 서원계곡은 승용차로 남정주-상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다 속리산 IC를 나와 속리산 방면으로 10여 분을 가다보면 나오는 계곡이다. 하지만 인근의 화양동계곡, 상곡계곡 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피서객에 치여 지쳐 들어오는 다른 여름 계곡과는 다르다. 특히 황해동 마을 앞 계곡은 무릎 높이의 물이 120m 정도 펼쳐져 있어 물놀이에 제격이다. 계곡 물은 탐피도 들어갈 정도로 차다. 특히 보은군에

- 송계계곡 병풍처럼 감싼 숲·너른 바위는 텐트 치기 안성맞춤
- 능강계곡 삼복에 만나는 얼음... 깎아지른 절벽·폭포수 절경
- 물한계곡 20km 물길 따라 태고의 신비 간직 생태관광지 각광
- 갈론계곡 옥빛 물·신선들 바둑 두었다는 바위·피톤치드 물씬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물한계곡 전경.



괴산 갈론계곡 제4곡 옥류벽 전경.



속리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보은 서원계곡 전경.

서 건립한 서원리농촌휴양마을에는 피서객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정자, 세면장 등의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휴양마을 건너편에서는 20m 절벽에 만들어진 인공 폭포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장관을 보고 직접 맛을 수도 있다. 인근에는 정이품송의 내외기간으로 알려진 정부인소나무(천연기념물 제352호), 우당고택(국가중요민속자료 제134호), 동학 취회지와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호서제일 가람 속리산 범주사가 있으며 차로 10

분 내에 갈 수 있다.  
◇ 차디찬 물, 영동의 자랑 물한계곡  
민주지산, 삼도봉, 석기봉, 각호산 등 이름만 들어도 정경한 영동의 명산들이 만든 깊은 골짜기 흐르는 물한계곡은 물이 차다. 한천마을의 상류에서부터 시작해 무려 20여 km나 이어진다. 원시림이 잘 보존된 계곡 주변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생태관광지로 많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물한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민주지

산, 삼도봉, 각호산은 사시사철 등산 애호가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정상에 있는 능선에는 각종 잡목과 진달래, 철쭉 등이 자리잡고 있어 어느 계절이든 장관을 이룬다.  
옥소폭포, 의용골폭포, 음주암폭포 등 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폭포들과 맑은 소(沼)들이 푸르른 숲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절경들은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린다. 그 경치가 가장 아름답다는 황룡사에서 용소(무지개소) 구간은 여름이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괴산 화양구곡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구곡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조선시대의 유교 관련 유적이 조화를 이룬 명승지로서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두루 지닌 공간이다. 대한민국 명승 제110호로 지정돼 있다.

청주에서 동쪽으로 32km 지점인 청천면 화양리에 위치한 계곡으로 청천면 소재지로부터 송면리 방향 9km 지점에서 3km에 걸쳐 화양천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루에서부터 순서대로 1곡부터 9곡까지 있으며 하천 주변에는 가령산, 도명산, 낙연산, 조봉산 등이 둘러싸고 있다. 넓게 펼쳐진 반석 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의 울창한 숲이 장관을 이룬다. 조선 중기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산수를 사랑해 이곳에 은거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의 무이구곡을 본받아 화양동에 9곡 경천벽, 운영담, 음곡암, 금사담, 침상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으로 이름지었다 한다. 그와 관련된 유적이 많으며, 산지수려한 구곡이 훼손되지

않은 채 잘 보존돼 있어 푸른 산과 맑은 물을 함께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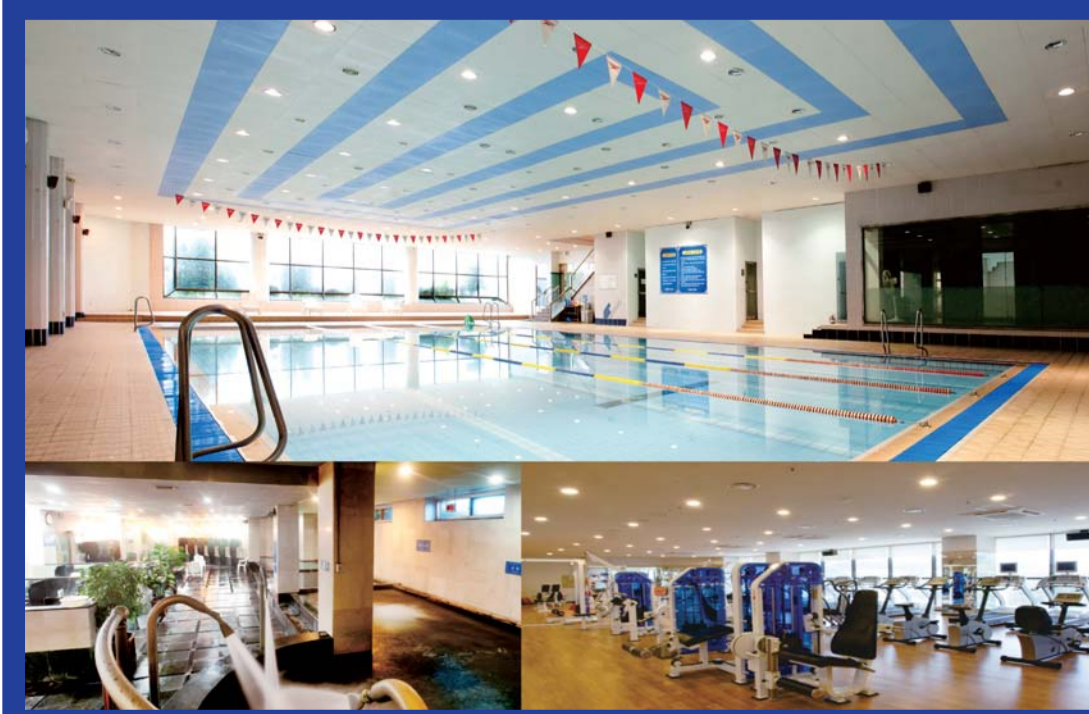
◇ 피톤치드의 '보고' 괴산 갈론계곡  
괴산의 갈론계곡은 아홉 곳의 명소가 있다고 해서 갈론구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골이 깊기로 소문난 괴산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라 할 만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계곡이다. 유리알같이 맑은 계곡이 곳곳에 비경을 만들고 있으며 물놀이하기에도 좋은 계곡이다. 갈론구곡의 구곡은 신선이 내려왔다는 강선대를 비롯해 같은동문, 갈천정, 옥류벽, 금방, 구암, 고송유수재, 철학동천, 선국암이 구곡을 형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으로 마당바위, 병풍바위, 형제바위, 개구리바위,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기국암 등 3km의 계곡엔 옥빛 물과 바위가 이루어낸 풍광이 아직도 수줍은 듯 얼굴을 가리고 있다.

특히 갈론계곡의 피톤치드 수치는 산림치유환경 최고 등급 보다 높은 4.26ppt로 높게 측정돼 눈길을 끈다. 피톤치드가 3.0ppt(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이상이면 가장 우수한 치유환경으로 평가된다. 이 수치는 인근 속리산 제조길 3.73ppt, 화양동계곡 3.38ppt 보다 높은 수치다.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도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대전일보 김진로 기자 <사진=충북도 제공>

-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全北日報 제주新보

新韓道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